“정체성 확립 · 조직화, 불교 세계화 요인”

혜유 스님, 10월 19일 향상포럼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국제화 · 세계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서 수행중인 혜유 스님〈사진〉은 10월 19일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10월 향상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비구니 역할, 전망,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혜유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승가를 진단하고 대만불교와 한마음선원을 불교 발전과 세계화 사례로 들며 향후 방안들을 진단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 비구니 교단은 1600년 전통이 지속된 승가집단으로, 평등의 실천모델로 봐도 무방하지만 현실에서의 위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개별적, 신행적, 종교적 영역에서의 역할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유 스님은 “다른 나라의 비구니보다 한국 비구니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비구니들이 강원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다. 사찰에서 돌봐주던 풍토가 바뀌어 각자도생의 풍토가 현재 불교계에 접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혜유 스님은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해 비구니 승가가 뚜렷한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된 조직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대표적 사례로 대만불교계와 한마음선원을 들었다.

40년 전만해도 전 국민의 30%를 밑돌았던 불교 신자를 80%까지 끌어올렸던 대만불교는 교육 · 조직 · 복지 · 문화 · 수행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화를 위해 세계 각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이와 같은 대만불교의 부흥기에 비구니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혜유 스님은 대만 비구니의 리더십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다른 불교국가보다 대만이 남녀평등 이념을 빠르게 잡은 점과 영향력 있는 비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꼽았다.

혜유 스님은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의 비구들에 의해 비구와 비구니를 위한 정식계율이 제도화됐고 영향력 있는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승단 발전을 장려하며 비구니의 교육과 수련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노력이 사회적으로 남녀평등 의식이 자라나고 있던 대만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불교 승가집단이 시대적 변화에 응답해 이끌고 가는 엔진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마음선원 · 대만불교 사례서
불교 발전 · 세계화 동력 찾아

대만, ‘비구 · 비구니 평등’ 강조
비구니 승가 활동 발전 견인

해외 지원 10곳 한마음선원
다양한 미디어 매체 바탕한
외국어 법문집 · 영상 효과 多

이와 함께 혜유 스님은 미국 뉴욕, 시카고, 워싱턴,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10곳의 해외지원을 두고 현지 포교를 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사례도 들었다. 한마음선원은 불교 세계화를 위해 법문 · 경전 번역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판부 · 미디어부 · 영상부 · 국제문화원을 조직해 외국어 법문집 출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유튜브 외국어 영상법문 개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실제, 한마음선원의 일련의 노력에 대해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혜유 스님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는 영상포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선원은 유튜브에 영어채널을 운영해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어 · 독일어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포교 방식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적합한 불교계의 다양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혜유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조직적 활용을 일선 종단 · 단체에 주문했다. 스님은 “대만불교의 비구니 활동과 한마음선원의 활동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뚜렷하고 조직이 뒷받침돼 있다는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한국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우국사 가르침 문화로 펼친다

태고종, 제8회 태고문화축제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종조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717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한울공원 분수대 앞에서 제8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식전행사로 각종 문화체험과 시민 재능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노래자랑을 비롯해 제기차기, 훌라후프, 가족끼리 줄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의 본행사는 오후 4시부터 이어지는 종사이운과 개회선언, 인사말 축사 등으로 꾸며지며, 본행사 이후에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 보우국사를 기리는 탄신 717주년 다례제는 29일 오전 10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거행된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36대 집행부 인선 마무리

사회부장에 덕조 스님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도

조계종 총무원이 공석이던 사회부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장 등 교역직을 임명하며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장들을 유임하면서 기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부장 덕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혜일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임명했다. 이는 제35대 집행부 당시 활동하던 지점 및 산하기관장 전원을 다시 임명한 결과다. 기관장의 잦은 교체가 각 기관 사업에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덕조 스님


원경 스님


재안 스님


탄웅 스님


원택 스님


제정 스님


혜일 스님


자공 스님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산하기관서 실무를 총괄하며 종무행정을 펼칠 교역직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묘인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탄덕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혜원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서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84년 수계했다. 하양포교당 · 진불암 · 불굴사 주지와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회는 구름을 벗어나 세상을 비추는 달입니다. 깜깜한 방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잘못을 깨달아 뉘우쳐 불보살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착한 삶을 발원하는 참회는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회의식은 부처님 당시의 포살(布薩)과 자자(自恣)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자들은 자비도량 참법과 예불대참회문, 천수경을 독송하며 참회기도를 합니다.

“무시이래로 제가 지은 악업은 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림 · 조향숙

참회는 모든 수행의 시작
악습탈피 새로태어날 때
발 보리심 · 발 사홍서원

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이제 10악의 중죄를 참회합니다. 백겁동안 쌓은 죄 한 생각에 스러질 것을 발원합니다.”

참회에는 사참(事懺)과 이참(理懺)이 있습니다. 사참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악업을 절, 염불, 독송을 통해 낱낱이 참회하고, 이참은 죄도 마음도 일체가 공(空)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은 악습을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때 완성됩니다. 참회를 통해야만 원력과 발원이 나오고 계(戒)가 몸에 뱁니다. 그 자리에서 발 사홍서원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경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자 앙굴리말라(손가락 목걸이라는 뜻)는 대참회를 하고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여 성자가 됩니다.

12세부터 바라문을 섬긴 그는 스승의 분노를 샀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1백 명의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교화한 내용이 〈앙굴마경〉에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사밧티에서 살인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저 사문은 겁 없이 혼자서 유유히 걸어오니 내가 어찌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는가.”

그는 부처님을 쫓아갔으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사문이여, 걸음을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나는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에 대한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엎드려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비구들과 사밧티로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자는 참고 견디어야 한다. 앙굴리말라야, 그대는 지금 옛날에 범한 악업을 보상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선업(善業)에 전념한 그는 게송을 읊었습니다. “그 옛날 범한 악업을/늘 선업으로써 덮는 사람/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 세상을 비추리라.”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

일시 2018. 11. 5(월) 13:00~17: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관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좌 장_ 신규탁 (연세대학교)
기조강연_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_ 혜총스님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제 1주제_ 한국불교의 현실과 사회적 신뢰구축_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제 2주제_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_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제 3주제_ 종단현실 속에서 재가운동의 현황과 전망_ 우희종 (서울대학교)
제 4주제_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_ 이덕진 (전, 창원문성대학교)
종합토론_ 청화스님 (전, 조계종교육원장) 원학스님 (전, 조계종총무부장) 신규탁 (연세대학교) 조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557635 예금주 :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101-906(운현궁 SK-HUB) TEL 02)736-6202 FAX 02)736-6203

